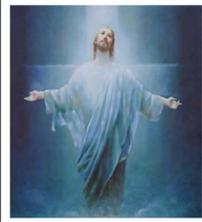


**공동체 소식**



## 주님 승천 대축일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저희를 들어 높이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기쁨에 가득 차 감사의 제사를 바치며,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하늘 나라에 그 지체인 저희의 희망을 두게 하소서.



**5월 기도지향**

- 유길수 크리스토퍼, 유경애 아녜스 가정
- 고영방 스테파노, 김명은 안젤라 가정

☞ 교황님 기도 지향 : 우리가 무관심의 문화를 거부하고 고통 받는 우리 이웃, 특히 아픈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도록 기도합니다.

**성모성월**

교회는 해마다 5월을 성모 성월로 지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이시고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시며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분에 대한 신심을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시기에 묵주기도와 성모 성월 기도를 자주 바칠 것을 권고합니다.

**구역모임**

- 1구역 : 5/23(토) 오후 7시, 정석원 라파엘 가정
- 2구역 : 5/22(금) 오후 7:30, 김도영(박희영 카타리나) 가정
- 3구역 : 5/23(토) 오후 7시, 고영방 스테파노 가정

**성령강림 대축일(5/24)**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요한 14,15)."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생활하시도록 간절히 청합니다.

**평협**

- 일시 : 5/24(일) 오후1시
- 장소 : 회관

**기타**

- '마더스 데이' 애찬 봉사에 수고해 주신 형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청장년 남성 피정'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해 주신 형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 토요일, 로렌스 야외미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4월, 평협회의를 통해 사제관 리노베이션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낡고 냄새나는 주방 가구와 비좁은 화장실 공사를 중심으로 견적을 받기로 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사제관 리노베이션을 위해 도네이션 해 주신 두 가정(홍순익 마르티노, 정준구 파비아노)에 감사드립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137	216	160/168	134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문예나 요안나 차민서 임마누엘	차호섭 요셉 문호진 안토니오
차주	고평원 프란치스코 정채린 소피아	정병훈 보니파시오 김준영 요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 아녜스	서재현 글라라 서민정 크리스티나
차주	박혜정 카타리나	김아람 크리스티나 은유나 요안나

**애찬 봉사자**

금주	김경돌, 박정자, 한순례
차주	김시연, 신혜경, 김말자

**헌금 봉사자**

금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차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5/10	83명	417불	1,300불
김화년, 문석찬, 정수한, 김정원, 이내익, 홍순익(총 6세대)			

☞ 특별헌금 : 2,000불

**주님 승천 대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5년 5월 17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예수님께서 영광 속에 하늘로 올라가시어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이 세상에 오셨던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을 당신 부활의 증인으로 온 세상에 파견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믿음과 희망으로 살아갑시다.

**그림 묵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승천**

주님의 수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지켜본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들 마음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내려오셨던 그분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에페 4,10)

**정미연 소화대례사**

**제 1 독서 :** 사도행전 1,1-11

<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



환 호 소리 높은 중에 하느님오르시도다 - 하느님오르시도다.

- 만백성 너희들은 손뼉을 쳐라. 기쁜 소리 드높이 주님 불러라. 주님께서서는 지존하고 지엄하시다. 온누리의 크옵신 임금이시다. ◎
- 환호소리 높은 중에 하느님께서 오르시도다. 나팔소리 나는 중에 주님 오르시도다.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그를 타며 우리 왕께 노래를 하여라. ◎
- 하느님은 온 땅의 임금이시니 멋지게 그를 타며 노래 불러라. 하느님께서 뭇나라를 다스리시도다. 거룩하신 어좌에 앉으시도다. ◎

**제 2 독서 :** 에페소서 1,17-23<또는 4,1-13 또는 4,1-7.11-13>

<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 음 :** 마르코 16,15-20 <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



### “저는 당신 손에 들린 연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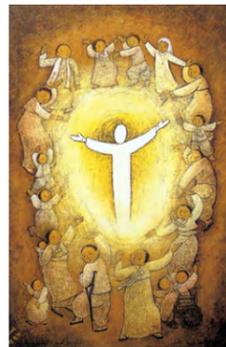
1.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사도 1,11)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던 영국의 소설가 C. 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몸의 부활’을 위한 한 가지 필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인간은 오직, 죽으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만일 우리가 ‘하느님의 임재(臨在)’를 연습할 수 없다면, 하느님의 부재(不在)를 연습하는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던진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결국 주님의 승천은 제자들과의 ‘생이별’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동행(同行)’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승천을 통하여 제자들은 더욱더 그분과 일치하는 길을 찾았고, 우리도 똑같이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페 1,23) 언젠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평일미사 강론 중에, “교회는 그저 난아가 잘 자도록 돌봐주는 ‘베이비시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잠자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역설하셨습니다. 사실 아무리 훌륭한 베이비시터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아기에게 엄마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代替)해 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교황님께서 “교회는 자녀들을 낳은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새겨주십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가 자기 엄마로부터 이른바 ‘조상들의 언어’(2마카 7,25.27 참조)를 배워서 그 가정의 진정한 일원이 되듯이, 하느님의 백성들 역시 ‘어머니인 교회’로부터 ‘그리스도로 충만케’(에페 1,23 참조) 되는 삶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마르 16,20) 복자이신 켈커타의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 “저는 다만 하느님 당신 손에 들린 연필입니다. 글씨를 쓰시든 지우시든 저는 다만 손에 들린 연필입니다.”라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봉헌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복음선포의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새로운 언어’(마르 16,17)의 표징도 약속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복음은 ‘낯은 언어’에 묻혀서 하느님과 소통하지 못하여 죽어 사라질 뻔한 존재들이 그분과 일치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이 길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 ‘떠나가서 곳곳에’(마르 16,20) 확신에 찬 증거를 하였습니다.

4. 교형자매 여러분, 주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큰 기쁨’으로 가득차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었습니다.(루카 24,52-53 참조)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이 로올라의 이냐시오 성인에게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Ad maiorem Dei gloriam)’ 살 수 있도록 재촉한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승천하신 주님과 더욱 일치하는 삶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언어’로 그분께 영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 서울대교구 정연정 신부 -



### 소설 <아버지>를 읽고

제 나이의 남자들이 모두 그럴테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아버지와 아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와 저, 그리고 제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대(代)를 잇는 어떤 “끈” 같은 것에 대한 지각이,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유난히 강렬해졌던 기억이 남아있는데,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끈을 느낀다”는 경험은, 아들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빈 자리를 채우고 싶은 저의 바람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제게 그랬듯이 저도 아들에게 책임과 정성을 다 해야겠다는 다짐의 다른 얼굴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천성이 착하셨고, 평생을 열심히 사셨습니다. 늘 일에 치이셨지만,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들도 많이 남기셨습니다. 어려서 전쟁을 겪고, 젊어서는 학비를 벌기 위해 남의 나라 전쟁에 참전하셨지만, 성정이 온화하셨습니다. 가난하게 자랐지만 궁색하거나 인색하지 않으셨고, 어느 정도 성공이라 할 만한 성취 뒤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처럼 자신과 가족의 주변을 정리하거나, 혹은 인생의 끝자락에 찾아온 작은 일탈을 누릴 기회가 제 아버지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신 인생의 가장 황금 같던 시기에, 가족들이 당신과 함께 아파할 시간은 불과 열흘 정도만을 허락하시고는, 그렇게 갑자기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삶을 생각하면, 다음 代의 아버지로서의 제 모습은 조금 부끄럽습니다. 많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제 아버지가 강압적이거나 ‘내가 이렇게 했듯이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 고 말씀하신 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하셨던 것만큼 제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항상 마음만큼 되질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본다면, 아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고, 제가 어렸을 때보다는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환경을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삶에 얼마나 큰 사랑을 보태고 있는 지를 생각하면 다시 부끄러워집니다.

인정해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뻐해주고, 슬퍼해 주고... 이런 것들이 제가 기억하는 제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제 아버지를 통해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버지와 저, 또 제 아들에게로 연결된 그 끈을 통해 사랑을 대물림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잘 할 자신은 없지만 포기하지 않을 자신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재주는 다 달라도, 모든 아버지들에게 “자식을 위해서라면 포기하지 않는 힘” 하나만큼은 정말 공평하게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평생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평원이든 저를 사랑으로 기억하지 않을까요?

언젠가 아버지 회사의 야유회에 따라갔다가, 회사 분들이 한잔 두잔 권하시는 술을 다 받아먹고 몹시 취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파트 화단에다 실수를 했는데, 그때 당신 손발로 다 큰 아들의 토사물을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흙으로 덮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고영방 스테파노